

* 지난주 강단제목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 32:11, 빌 4:4-6)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시교독	40. 시편 96편 / 인도자와 회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이다 (1-3)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5-6)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이다 (9)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이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1-13)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김현 장로 (2부) 김경희A 장로
성경봉독	스바냐 3:17(구약 1309쪽), 마태복음 1:21-23(신약 2쪽) / 인도자
찬양	(1부) 서로 사랑하라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예수는 그리스도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절대 불가능 앞에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복음으로 여는 스바냐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반복)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배승찬 장로 (2부) 양경심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넛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양은숙 권사 (오후) 정수환 집사
인도, 설교	(오전) 박범서 목사 (오후)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유경선 권사

(오후) 조현지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설교	세계랩넛트대회 박범서 목사
----	-------------------

다음 주 기관보고 : 나의 237(아프리카)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령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오늘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프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은 없습니다.)
2. 제29차 세계램네프대회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창41:38)'를 주제로,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립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마음을 담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께서는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전에 등록을 못하신 분은 현장에서 당일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회에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차량을 이용하시거나, 교구별구역별로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세계램네프대회는 생방송으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전, 오후예배와 금요일아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 8월 7일(금)은 세계램네프대회 관계로 금요일아기도회 때 기관보고와 찬양팀 없이 밤8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4. 교회학교와 각 부서별 여름훈련일정을 두고 헌신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1) 8.2~3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2) 8.15 청년부 세계청년수련회 3) 8.22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복음요절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아기도회 / 1층 비전홀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5)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프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 가정 램네프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심한결 목사-정지혜 사모 가정, 복이(태명, 남) Rt : 7월 27일 출생)
2.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윤돈 담임목사 : 8.4~7 제29차 2026 세계램네프대회 WRC-대구 EXCO
 2) 심한결 목사, 이현규 목사 : 8.4~7 제29차 2026 세계램네프대회 WRC-대구 EXCO
 3.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4.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프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2) 트릭킵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교회소식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랩넌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쿼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극,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쿼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직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월 8일과 15일 토요일에는 세계렘넌트대회와 세계청년수련회 관계로 휴회입니다.
2. PMAW수련회가 '세계렘넌트를 세우는 땅대(사62:6-12)'를 주제로 8월 9일(일)부터 11일(화)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 제50차 사랑부렘넌트대회가 '24, 25, 영원의 사람들(히13:8)'을 주제로 8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 세계청년수련회가 '나의 삶을 없애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갈2:20)'를 주제로 8월 15일(토) 열립니다.

8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렘넌트부서연합예배(2) / 제29차 2026세계렘넌트대회(4~7, 대구 EXCO)
2주차	장학생 선발공고(9) / PMAW수련회(9~11, 덕평 RUTC), 청소년 777합숙(12~15), 제50차 사랑부렘넌트대회(12~14), 세계청년수련회(15)
3주차	RM부모학교(17), 청소년합숙(중·고등, 17~20)
4주차	장학위원회모임(23) / 237화요제자훈련(25, 덕평 RUTC), 렘넌트데이(29)
5주차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렘넌트부서연합예배(30) / 북미주 산업인대회(9.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업인수련회(9.2)

8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김현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6층) 김금남 최진희
안내위원	(위원장) 김경희A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정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걸-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궁이 김춘례 김재귀-장소녀 임영순 호민수 이영순 김나경 김일호 김순자 유재숙 김미자 김영순 김주영 이순근 조성균-김갑례 정향란 이은희 윤수연 박인자 김희권 최송화 최재경 김준석 나경철-신현식 김경애 임소순 남호정 심성하 한영희 이상구-이정미 김정연 신혜선 정민호-이서은 여 명 전은정 박숙자 윤순옥 박난순 홍명숙 임혜연 이연균 여현지 임혜미 정예승 박찬열 조현지 임경미 김태은 송길호 김지수 이민형 아이연 최일숙 유승환-최아현 김지후-이현주 김소라 고진순 김명철 장유미 김자유 김영희 김현상-이미화 김승훈-김혜인 조재형 김아리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유영식 조부영 김창균 임예진 이효숙 채승아 이선이 안나근 방주은 강환국 배준서 안예근 무명15		
십 일 조	정윤돈 최신영 정년영 정향란 김계자 임영순 양경심 이영순 신혜선 유충환-강궁이 정민호-이서은 정세완-박희영 이명재-구윤진 신승훈-박영인 여 명 배준서 홍경아 박주은 이 명 정수환 고경훈 임근일-양은숙 김태은 김혜인 임혜미 박찬열 정예승 김춘례 김영희 김금남 김승훈 김아리 최송화 김영진 노은현 박동영 김희권 이효숙 이은희 최신혜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윤성희 박진수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이상구-이정미 여현지 임혜미 방주은 황혜주 김태을 조연희 조재형 최신혜 이은숙 김지후-이현주 한경숙 김현진 이계옥 유경형-라종화 박동영-최진희 이효숙 홍경아 손혜옥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 임민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이상구-이정미 정민호-이서은 장년영 이은희 신승훈-박영인 이영순 양경심 임영순 임근일-양은숙 유승범-주은경 방주은 김순호 박찬열 김승훈-김혜인 최송화 조성균-김갑례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이 명 주식회사 푸로 무명2		
차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방주은 아이연 (*2026년도 총계 404,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현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상구-이정미 정민호-이서은 신승훈-박영인 양경심 임영순 정수환 임근일-양은숙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박찬열 김순호 정예승 김승훈-김혜인 최송화 조성균-김갑례 김창균-임예진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무명		
장학헌금	박범사-김진아 이상구-이정미 장년영 정민호-이서은 신승훈-박영인 이영순 양경심 임근일-양은숙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방주은 김우진-김태은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최송화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최신혜		
어학연수	정수환 조부영		
RUTC헌금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김원일-전인숙 이상구-이정미 정년영 신승훈-박영인 임근일-양은숙 정수환 방주은 김영희 김승훈-김혜인 최송화 조성균-김갑례 노은현 박동영-최진희 최신혜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7. 22. ~ 2026. 7. 28.)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82,508,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60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8,534,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507,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9,000,000엔 (한화 4,265,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장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감정수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윤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A</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B</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창호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u>김숙희A</u>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시편 32:11, 빌립보서 4:4-6

들어가는 말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군가 살짝 끼어들었을 땐인데 뒤에서 격렬하게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가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데에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있다. 표면적인 사실은 누군가 법을 어기고 새치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경적을 울린 자의 내면의 진실은 그날따라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부부 싸움을 했거나, 기분 나쁜 일을 겪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보다 깊은 영적 사실은, 그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돈문제, 자녀문제, 부부관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영향 안에 자신을 제어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욕하는 마음에 욕을 하고 싸우며 심지어 살인과 같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며 인생을 망치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 이 기쁨은 그저 기분이 좋아서 실없이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의 기쁨이 아니다. 주 안에서 '이유' 있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한 엘리트 불신자들도 확고한 인생철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화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물며 성도들이 책 한 권 읽지 않고 말씀 묵상도 없이 아무렇게나 흑암과 혼돈 속에 던져진 인생처럼 욕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나이만 먹고 평생 철없이 사는 어른들이 수도독한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생이라도 눈동자만 보면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미래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해야 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10대, 20대의 젊은 나이에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만난다. 얼굴이 충분히 예쁜 한 여학생은 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코수술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내 얼굴이 예뻐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철저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인지심리치료를 사용하지만 영적으로 각인된 저주는 세상의 상담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진짜 실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예뻐야만 성공한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환난과 갈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1:2)"고 하셨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기뻐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지만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4장의 짧은 성경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한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강조한 데에는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다. 구원과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지는커녕 서로 인상을 쓰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친구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교회 식구는 천국 갈 때까지 보아야 할 가족이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의사처럼 건강한 사역자도 있지만 상처와 영적 문제가 가득한 중환자도 넘쳐난다.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을 뿐, 때로는 담임목사가 가장 심각한 영적 중환자일 수도 있다. 교회는 죄인과 중환자가 모이는 영적 병원이기에, 이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힘이 없으면, 나 스스로가 지옥을 살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도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알박한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절대 기쁨'이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돈이 없어도, 내 외모가 부족해도, 남편이 이상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교회 안에 갈등이 가득해도,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위기는 훗날 당신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축복의 통로요, 대로(大路)가 될 것이다. 시험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격정하는 티를 내지 않고 매사에 지나치게 행복해하는 어느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하셨다. 힘들고 답답할 때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기쁜 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박국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에, 스스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원하신다. 유치원 아이들의 집중력이 15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말이다. 개척시절 유치원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혀놓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복

음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들의 눈망울이 또랑또랑 빛나며 미동도 하지 않고 말씀을 스편지처럼 빨아들인다. 청소년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가 자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와 예배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기는 신앙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고 응답의 확신이 차오른다. 눈을 떠보면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 속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이변계약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찬란하게 성취되고 마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헬라어로 쓰인 '기뻐하라'는 단어는 '카이로(Chariro, χαίρω)'이다. 이는 육신적인 기쁨이 좋아 웃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주권,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뜻한다. 카이로의 명사형인 '카라(Chara, χαρά, 기쁨)'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Charisma, χάρισμα)'이다. 흔히 세상에서 리더십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카리스마가 있다'고 오용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에스더에게 감옥과 노예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비전과 이변계약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언약의 선물을 쥐고 기뻐해야 한다. 남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서도 매사에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1. 빌립보교회의 설립과정과 특징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의 축복을 받고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교회의 담임 목사 격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현금을 전달하려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다. 그는 교회의 상황을 바울에게 통보하였다. 그 영적 상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권면의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빌립보서이다. 사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도 다 마찬가지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타락한 본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렇다면 제자훈련의 끝은 무엇인가. 류 목사님은 제자훈련의 최종적인 끝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말씀이라고 하셨다. 최종적으로 내 삶에 이 영적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세팅되어야만 비로소 다른 제자를 온전히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 사도 바울의 부르심부터 빌립보교회 개척까지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로, 사도행전 7장 스테반 집사의 순교현장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디모데 도상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행9장).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며 구약성경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하며 자신을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시켰다. 그 후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교회에 정착하여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대로 제1차 선교여행의 파송을 받게 된다. 2차 순교여행 중 마가 요한의 하차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복음화를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 드로이에서 마게도나인의 환상("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9)")을 보고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렸다. 그렇게 당도한 최초의 유럽 관문이자 마게도나의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예비된 제자인 자색옷 감장수 '루디아'를 만났다. 또한 집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주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옥문이 열리는 기적 속에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향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16:31)"라 선포하며 그 가족 모두를 회심시켰다. 이렇게 루디아, 치유받은 여종, 간수라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교회의 시작이었다. 1캠프(기도와 성령인도), 2캠프(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3캠프(제자와 열매)로 이어지는 영적인 전도여정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항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영적 상태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모든 만남과 산업의 역사까지 친히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 언약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2) 빌립보라는 도시와 교회의 특징 빌립보라는 이름은 헬라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바울이 방문할 당시 이 도시는 로마제국의 직할 통치 하에 있었다. 마게도나 지역의 최전방 핵심기지였던 빌립보에는 특이한 정책이 있었다. 로마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전쟁에 참전하고도 신분상의 제약으로 로마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방출신 퇴역장교와 군인들에게 이 변방 도시인 빌립보에 이주하여 살면 특별히 로마시민권을 부여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빌립보에는 거친 퇴역군인들, 철학을 토론하는 지식인들, 가난한 노예들 등 극도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다 보니 의견충돌과 분쟁,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빌립보서의 문제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답

1) 투기와 분쟁 vs 착한 뜻(전도) 빌립보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 부류가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성숙함 없이 시기와 질투, 투기와 분쟁의 불순한 동기로 전도에 열을 올렸고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전도를 감당했다.(빌:15) 누군가 전도를 많이 하거나 담임목사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시기하여 뒤에서 수군거리려는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 홀로 바르고 거룩한 척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와 왜 이 모양이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며 끊임없이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며 죽을 앞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 뜻밖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겐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 씀은 교인들이 박 터지게 싸우고 시기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 못돼먹은 본성으로라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본질 자체가 위대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바울의 진짜 깊은 속내는 1장 27절에 담겨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라는 말씀이다. 세상의 육신적 기준과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외모가 늙고 살이 쪼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의 영적 '진실'은 바로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여유가 없기에 남을 칭찬하고 세뇌할 영적인 힘조차 고갈된 것이다. 교회 내에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말씀으로 다독여 줄 중간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학 공부의 몇 년이 걸리지만 영적 사탕의 자리에 서는 것은 오늘 당장 나의 손을 결단 하므로 족하다. 수십 년을 믿고 도 제자리걸음하는 율법적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당장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2) 엘리트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교만 빌립보교회 안에는 스스로의 배경을 자랑하는 로마시민권자와 지식인들, 철 학자와 유대인 엘리트들이 가득했다. 바울은 자신의 엄청난 육신적 스펙을 나열하고 배설물이라 고백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인이요 열심으로는 회교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 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 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3:4-9)"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무용담을 열 배씩 부풀려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하물며 당대 최고의 권 력이었던 로마제국의 장군출신들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 안에서 "내가 로마시민권자다, 내가 홀 통한 철학자다, 내가 돈이 많다"며 얼마나 많은 교만과 허영이 넘쳐났겠는가. 바울은 일침을 가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창조주 하나님임이니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구유에 낳어져 오시고 십자가의 참혹까지 순종하셨는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알맞은 돈과 지식과 스펙을 자랑 하며 교만을 떨어셔야 되겠느냐는 뼈아픈 책망이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원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다. 교만하고 열등감이 똑같다. 자신의 못된 모습을 줄여보려고 교만하게 행동한다. 진정으로 여유 있고 복음의 깊이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며,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얹드린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건만, 현실이 조금만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 아오지탄광이나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이란,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보내놔야 비로소 감사를 배울 것이다. 우리 부모세대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 이 나라를 일구었는데 작은 고난 앞에 징징대며 투정 부리는 것 은 아직 영적으로 기저귀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육신은 어른인데 신앙의 수준은 유치원생처럼 "이거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며 주저앉아 떼쓰는 영적 미성숙에서 빨리 벗어나 철이 들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카 리스마,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굳게 붙잡고 남을 살리는 전도자로 성숙하기를 축원한다. 아무리 좋은 응답의 조 건이 주어지지 스스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 사도 바울 역시 겉모습으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 성격이 강해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다. 성도들에 게 보낸 편지를 부드럽게 쓴 것 같지만, 빌립보서 같은 서신을 보면 아주 뒤통이 있는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원하는 마음'이었다. 우리도 겉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고 어린이가 같으며 부족할 때가 많다. 인 내력과 능력도 없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욕도 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 이 되고 진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 나 역시 틈이 날 때마다 지구 30바퀴를 돈다는 심정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류광수 목사님의 토요메시지를 들을 때도 한국어 로만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300%집중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함께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는다.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과 내 삶에 실천할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스스로 실천하고 도전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성 공할 마음도 없으며 만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성공비법을 알려주어 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다. 여러 분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 다. 그레아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정확한 해답이 되고, 도전을 넘어 실천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 다. 영적인 관심이 다 뜬 데 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신앙성장과 훈련을 멈춘 성도들 바울은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 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한다. 성경을 14권이나 집필한 당대 최고의 영적 가장 사도 바울조차 끝없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 겸손히 꾀대를 향해 전력질주했는데, 오늘날 알량한 성경지식 조금 안다고 기도훈련과 말씀훈련을 멈추고 자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영적 문제, 정신병의 특징은 항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가정의 불화, 가난, 실패의 상처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계복음화라는 거대한 미래의 꾀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 하라. 우리는 과거의 늪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1천만 제자를 세우고 다가오는 AI로봇시대와 237개국 선교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달려가기에도 벅찬 세월이다. 비록 내가 당장 세계의 오지를 다 밟지는 못 하더라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매일 자구 30바퀴를 돌며 선교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전심 을 다해 예배에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결단하라.

4)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 빌립보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 들은 교회 내에서 부딪혔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 보는 데 힘을 쏟아야 했지만 정작 싸움과 갈등에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 다. 이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4:2)"고 권면하며, 4장 4절에서 7절에 위대한 신앙의 해답을 제 시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 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 안의 갈등, 미움,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다. 사람에게 따지고 세상의 인지심리치료 같은 상담에 의존하지 말라. 세상의 심리치료는 "네가 못생겨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다"는 식의 흔적이고 인간적인 위로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남편을 거칠게 만들고, 성도 들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의 불씨를 지피는 그 배후에는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사탄의 체계가 숨어 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로 상대방을 움아매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내고 결박하는 영적인 기도로 승 부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24시간 심령에 굳게 붙잡고, 25시의 영원한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깊이 누리는 참된 영적 치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결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사명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 받아 지역, 민족, 세계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팝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부)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넛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넛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넛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넛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혜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